Macro

한국 수출: 반도체를 빼고 보아도

Economist 이정훈, CFA
jhoon.lee@daishin.com

- 8 월 수출 +68.7%YoY 증가, 일평균 수출 +72.5%YoY 로 올해 최고치
- 반도체 수출 증가율 200% 상회, 그러나 반도체 제외 수출도 더 확대
- 제조업 경기 전반이 호조 보이는 상황, 내수 파급 효과도 더 확산될 전망

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 70% 상회

8 월 한국 수출은 +68.7%YoY 증가해 3 개월 연속 60%를 넘는 증가세를 유지했다.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+72.5%YoY 로 오히려 가팔라져, 올해 들어 처음으로 70%를 상회했다. 무역수지도 +347 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6 월(+359 억)에 육박하는 흑자폭을 기록했다.

200%의 반도체를 덜어내도 수출 경기 전반이 호조

8 월 반도체 수출은 AI 투자 수요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+209.1%YoY 증가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. 컴퓨터도 2 개월 연속 400%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다(+419.4%).

AI 수요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반도체/컴퓨터를 제외한 수출은 7 월 +18.0%YoY 에서 8 월 +8.1%YoY 로 둔화되었으나, 이는 자동차 수출이 노사 분쟁에 따른 생산차질로 -29.8% 급감한 영향이 컸다. 오히려 개별 품목들로 보면 석유제품(+65.3%), 화장품(+52.0%), 이차전지(+24.1%) 등 전반적인 수출은 7 월보다 더 좋았다. 최근 3 개월 평균 수출경기확산지수는 2021 년 이후 최고치인 65 수준까지 상승했다. AI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좋을 뿐 지금은 수출 산업 전반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. 최근 국내증시에서 반도체 이외 업종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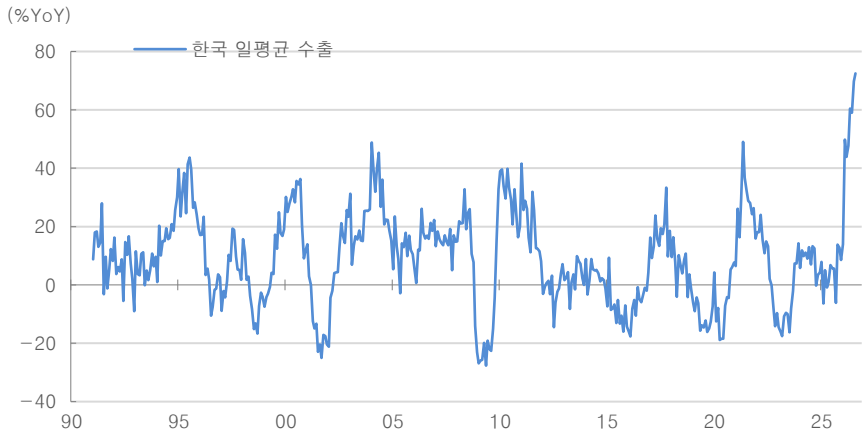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수출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가 상승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, 특히 대중 수출은 반도체가 +320% 폭증하면서 33 년 만에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(+119.3%).

아직 제조업 업싸이클 진행 중, 내수 파급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

올해 2 분기 이후 반도체 이외 품목으로의 수출 확산이 유지되고 있다. 이는 전체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. 최근 ISM 제조업지수의 흐름을 보면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는데, 과거 확장 국면 진입 후 고점까지 도달 기간(1~2 년)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수출경기가 매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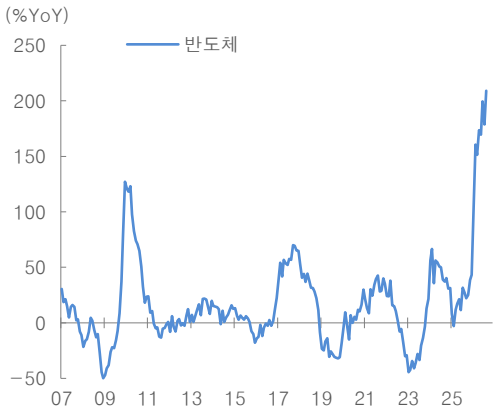
9 월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둔화되겠지만, 이를 감안해도 3 분기 수출 증가율은 2 분기(+57.0%YoY)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. 3 분기는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기저효과가 꽤 강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나, 수출경기를 감안하면 명목 성장률은 3 분기에도 전년비 20%에 육박하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. 여기에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가 점차 지표 상에서 뚜렷해 지고 있어, 내수로의 파급효화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.

그림 1. 8 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 70% 돌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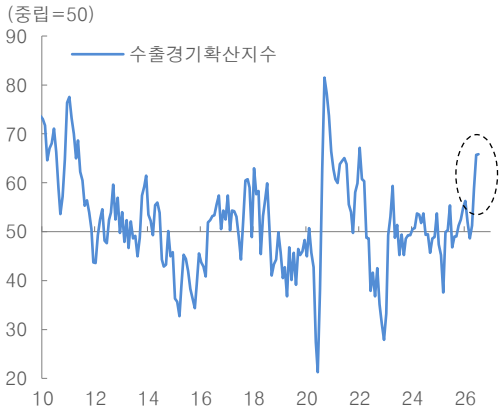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. 반도체는 200% 돌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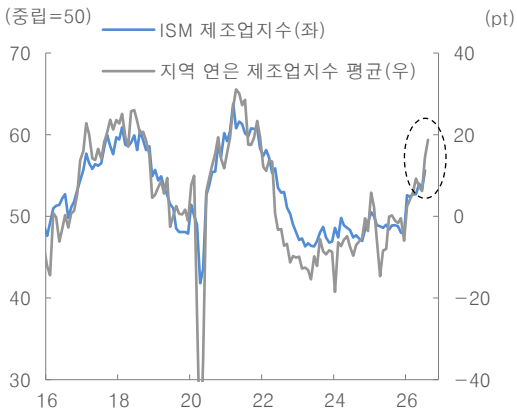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3. 수출경기 확산지수도 2021 년 이후 최고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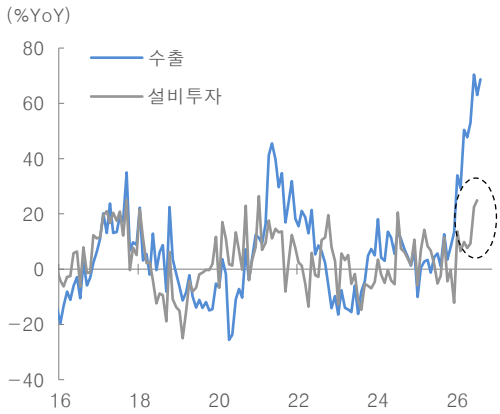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4. 제조업 경기 확산은 현재 진행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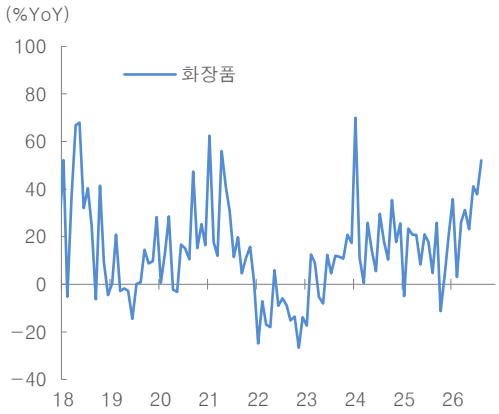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5. 국내 투자로의 파급 효과 나타나는 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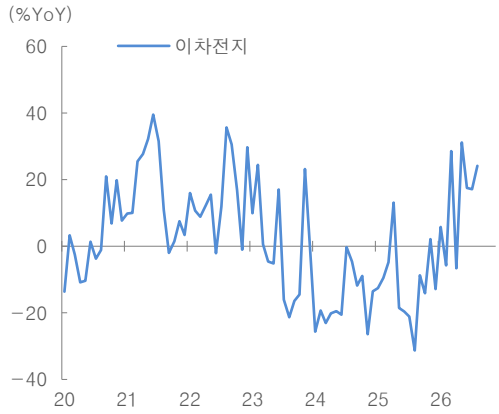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6. 화장품 수출 +52.0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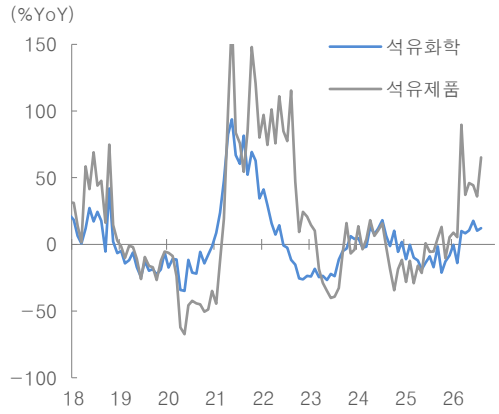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7. 이차전지 +24.1%YoY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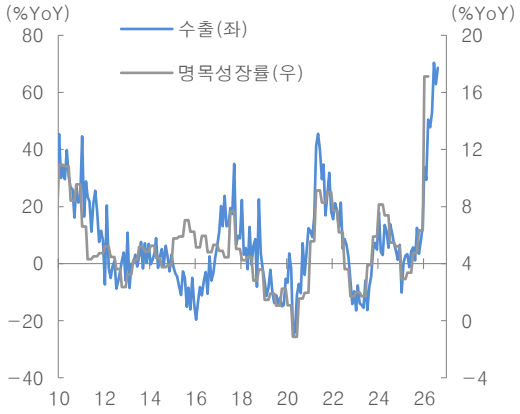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8. 석유제품도 60% 넘는 증가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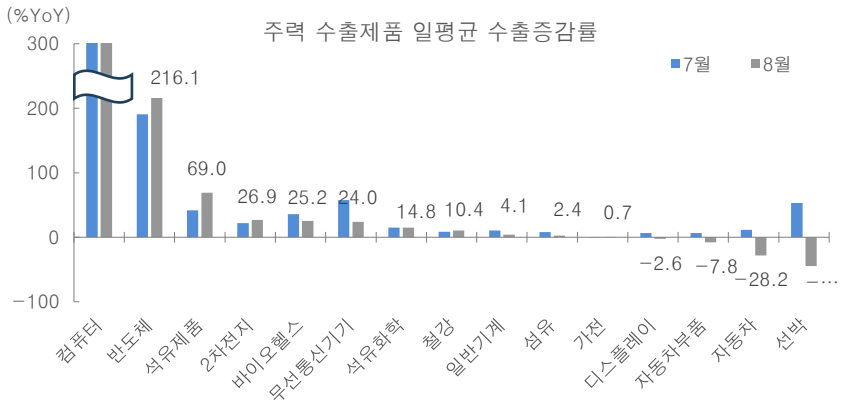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9. 3 분기 명목 성장률도 20% 육박할 듯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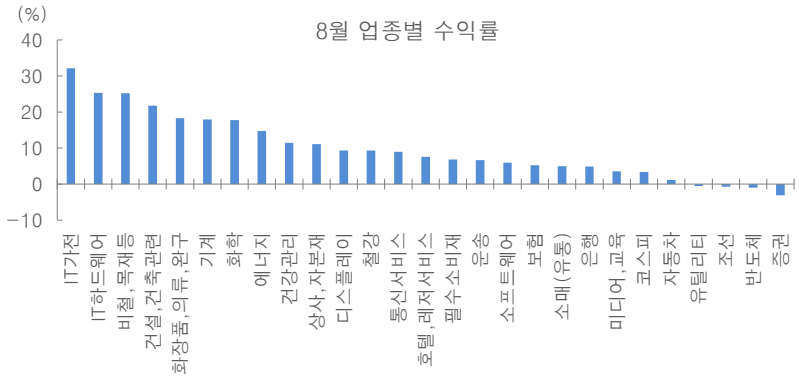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0. 반도체 이외 품목들 수출도 전반적으로 호조

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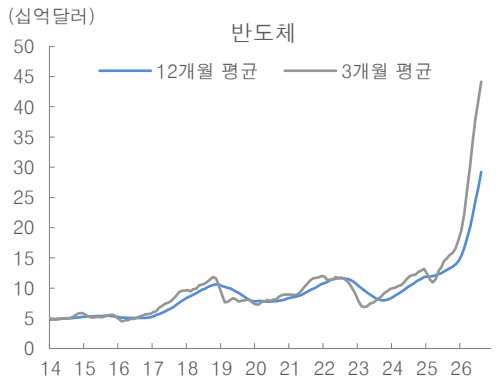
그림 11. 수출 온기 확산을 반영 중인 국내 증시



자료: QuantiWis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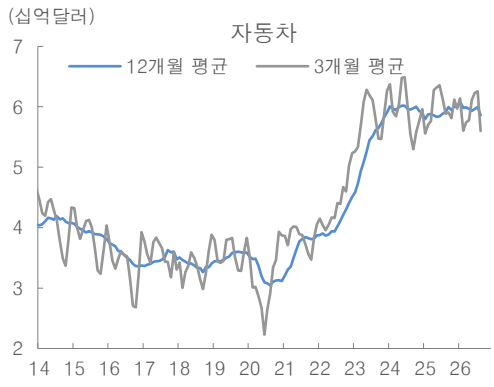
품목별 수출액 Chart

그림 12. 반도체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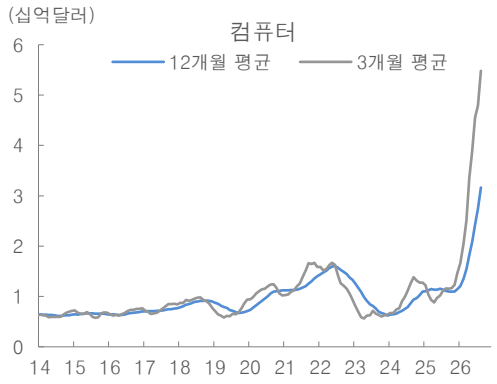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3. 자동차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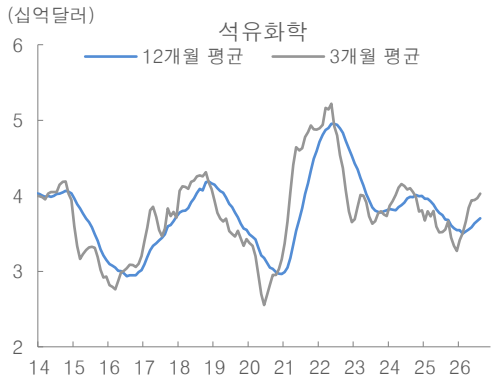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4. 컴퓨터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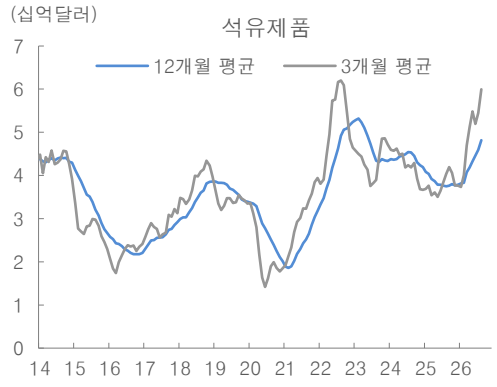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5. 석유화학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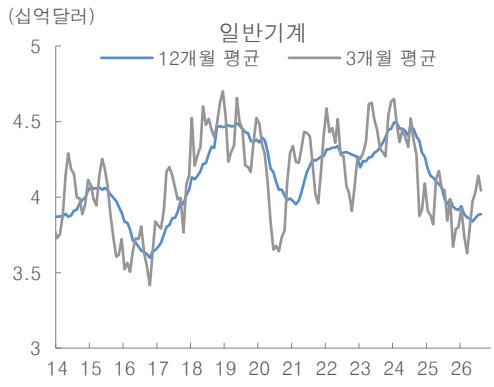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6. 석유제품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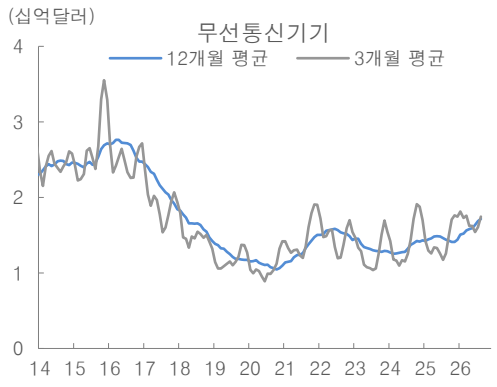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7. 일반기계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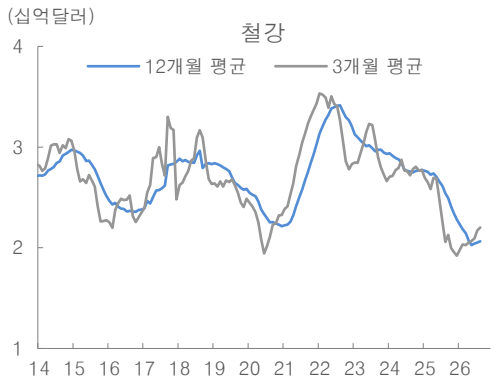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8.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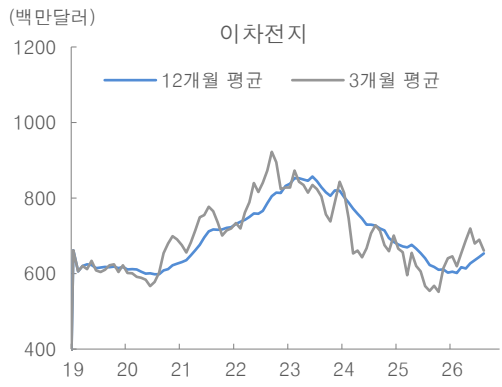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19. 철강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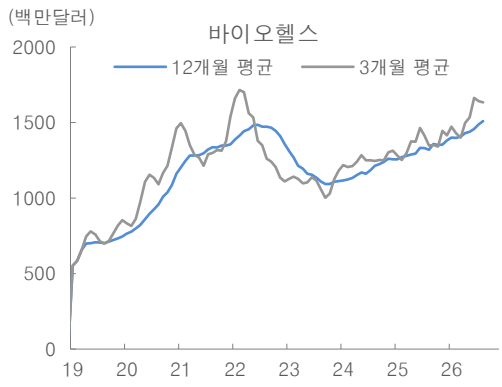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0. 이차전지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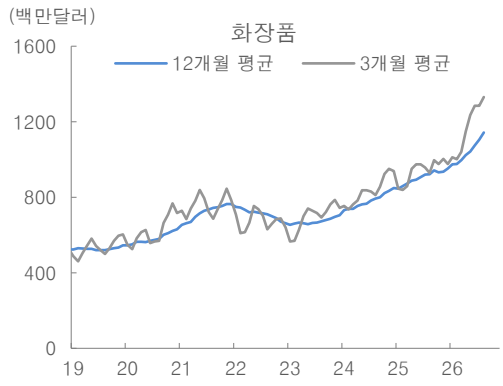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1. 바이오헬스 수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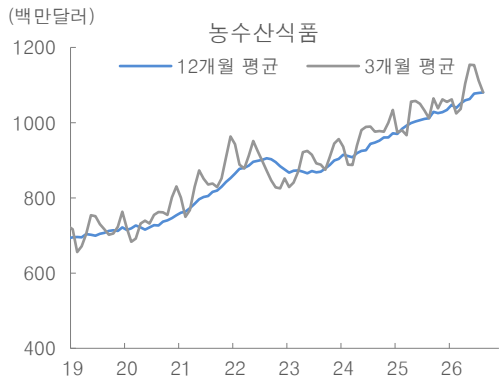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2. 화장품 수출액 추이

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그림 23. 농수산식품 수출액 추이



자료: CEIC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(담당자:이정훈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